

“시민 목소리 들어야죠”...자전거타는 노관규 순천시장

비오는날만 빼고 자전거로 신·구도심 돌아 출근 시공무원 현장 점검 강조하며 스스로 소통 행보

민선 8기 취임 후 걸어서 출근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조해오던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최근 자전거를 타고 신도심과 구도심 길을 거치면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제가 틀린 판단만큼 순천은 살기 좋은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 “걸어서 출근하기에 이어 자전거를 타고 신·구도심을 번갈아 가면서 현장을 돌아보는 등 시민과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 10일 자전거로 가곡동 집을 출발해 서면 순천 산업단지과 조례동 호수공원을 거쳐 연향동 국민은행과 조곡동에서 시점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출근했다.

이어 11일은 순천대학교와 향동 공마당, 옥전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동천 저류지 분화구 정원 공사장 및 아랫장을 둘러봤다. 노 시장은 “시내버스로 타고 걷기도 하지만 날씨가 덥고 많은 장소를 둘러보며 시민들을 만나기에는 자전거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 현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과 시민들에게서 직접 듣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시장의 이 같은 현장 행정은 곧바로 성과를 보였다. 비 내리던 날 늘어진 나뭇가지로 인해 우산이 걸리던 가로수가 정비됐고 보도에 아무

렇게나 방치됐던 키크브와 인도를 막고 있던 냉장고가 치워졌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사가 한창인 분화구 정원 현장도 출근길에 둘러볼 수 있었다. 또 월도심 중앙동의 공동화 현상이나 용당교 주변의 횡단보도 이용 개선 등 곧바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 부서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노 시장은 “출근 후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에게 싫은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일 수 있다”며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출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여름과 장마철을 지나면서 무성해진 풀들을 뽑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격려하기도 했고, 미화요원, 공원관리요원과 이야기도 나눴다. 지나가는 어르신들 만나면 멈춰 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노 시장은 “자전거를 타면 언제든지, 어디



서든 내리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자전거 출근은 현장 소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공무원들에게 현장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 만덕교차로, 고가도로 상하행선 차로 체계 변경 운영 상행선 교량공사 위해 내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차로 변경

여수시가 만덕교차로 개선사업 상행선 고가도로 공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2023년 6월 31일까지 상하행 차로 체계를 변경 운영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차로로 운영 중인 하행선은 1차로는 하행선으로, 다른 1차로는 상행선으로 차로를 변경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 중 운행차로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운전 신호수를 배치하고 무인 과속단속 장치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운전자와 관광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교차로 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보 전광판을 활용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차로 변경으로 운전자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사업이 완공되면 만덕교차로의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만덕교차로 개선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희망도서관, 드로잉 매직쇼 ‘얼라이브 쇼’ 운영 8월 27일, 미술과 마술의 아름답고 신기한 콜라보에 어린이 가족 초대

광양시 희망도서관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 가족 100명을 초청해 드로잉 매직쇼 ‘얼라이브 쇼’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매일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치는 희망도서관의 특별 프로그램인 ‘희망문화놀이터’의 8월 행사로 기획됐으며, 신나는 드로잉 퍼포먼스와 신기한 마술을 함께 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다. 공연은 비둘기와 지팡이, 대형 깃발, 꽃가루 등 화려한 마술로 시작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음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앤디 워홀의 메릴린 먼로로 변화시키는 드로잉쇼를 펼쳐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3단 분리가 되는 팔 분리 마술쇼, 거꾸로 그림을 그려 작품을 완성하는 리버스 드로잉쇼 등 드로잉과 마술을 결합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 가족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현숙 광양희망도서관장은 “유명 작가의 그림을 활용한 드로잉 매직쇼를 통해 아직 미술이 낯선 어린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매섭게 성장하는 보성물, 목표액 조기 달성 2022년 목표액 20억 원→3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보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보성물’이 가파른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억 2천 9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보성물은 올해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7월 말 기준 18억 원의 매출고를 보이며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성군은 2022년 보성물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성군은 2017년 지역 농가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을 오픈했다. 오픈 첫 해인 2017년 4천8백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억2

천8백만 원, 2019년 4억1천9백만 원, 2020년 4억6천7백만 원, 2021년 9억2천9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군은 보성물에 입점한 농민들에게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카드 등 결제수수료 전액 면제, 택배비 50% 지원, 보성물 택배포장재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신규 회원가입 시 2,000원 적립금과 3% 구매적립금, 매일 출석 체크 시 100원, 상품 후기 및 댓글 작성 시 최대 300원 적립금 등 구매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제2기 특색있는 ‘고흥맛집’ 모집...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은 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을 대표할 제2기 「고흥맛집」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한 음식점(베이커리, 카페 포함)이다. 이번 제2기 고흥맛집은 30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 고흥맛집에 대해 지정교 부보, 맛지도 게재, 홍보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흥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고흥군청 관광정책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